광주 봉축, 공모사업 통해 열린 행사로

국군병원 위문 · 518희망등달기 · 붓다 떡 전달 등 다채

공모 프로그램 공개, 열기 높아
가족 영화 나들이, 목욕봉사도
선정 단체에 홍보 지원 예정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광주지역 불교단체들의 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부처님오신날공모사업을 통해 불교단체와 사찰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축행사를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공모에는 광주지역 대표적 불교단체와 사찰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 봉축위(단장 시각)는 "기존 봉축행사가 등축제 행사에 머물고 있어, 이번 공모사업은 봉축기간동안(4월~5월)에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부처님의 탄생 의미와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의 내용도 다채롭다. 먼저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2014 붓다의 희망선물' 이란 주제로 동구지역 청소년가장세대에 '부처님 오신 날 선물 보내기' 를 진행한다.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할 도서와 영양제, 붓다의 편지 등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은 '국군 함평병원 환우를 위한 위문공연' 을 개최한다. 행사는 함평병원 대강당에서 환우장병과 장교를 비롯한 사병들을 위한 위문공연과 차 봉사활동이 진행된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봉축주간에 5 · 18민중항쟁으로 희생된 영령을 위한 '5 · 18 희망의 등 밝히기' 를 개최한다.

행사는 5 · 18당시 격전지였던 전일빌딩에서 원각사 입구까지 시내 거리를 연꽃등 518개를 달아,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의 의미와 시대의 아픔을 겪은 영령들에게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광주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붓다의 떡공양' 이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생일 떡을 시민사회단체에 전달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자비사상을 시민사회에 전하는 의미이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봉축행사를 개최한다. '붓다와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 라는 주제로 환우와 가족들의 영화나들이 행사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연꽃등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 2014 광주지역 봉축기간에는 불교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대해노인복지센터(대표 무진)는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광주 동구지역의 차상위계층 어르신과 독거노인들에게 화순 철쭉축제와 목욕, 식사대접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대불련 전대지부, 맑고 향기롭게, 광주 광산구청, 광주불교교육원, 동원사, 선덕사 등이 행사를 개최한다.

광주 봉축위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행사비 일부와 홍보를 지원한다. 특히 열악한 제정으로 단체별로 진행하지 못했던 홍보를 다양한 매체(포스터, 현수막, 신문광고 등)를 통해 전달시킬 예정이다.

광주봉축위 단장 시각 스님은 "각 단체들 홍보를 봉축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봉축행사를 계기로 지역 불심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통일된 조국 만이 3 · 1정신 계승할 수 있다"

장수 죽림정사, 3·1절 기념법회 봉행… 500여명 참여

정토회 등 용성 스님 관련단체 모여
통일한국 위한 운동 펼칠 것 결의
5월 29일 학술 심포지엄 개최

"대한독립 만세, 남북통일 만세, 평화통일 만세"

우리 민족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조국의 독립을 외친 삼일 운동 정신이 널리 퍼졌다.

3 · 1 독립운동 95주년을 맞아 민족대표 33인중 불교대표로 참여한 백용성 조사의 탄생지인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3월 1일 용성교육관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중현 스님(용탑선원장), 유수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이풍삼 광복회 前전북지부장, 김정길 6 · 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대표, 정인선 원불교 교무, 신봉수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상무이사, 신봉수 통일의병 대표와 정토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순국선열에 대한 향공양,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꽃공양, 3 · 1절 경과보고,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삼일절 노래 제창, 환영사, 기념축사, 기념법문, 신독립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정토회 회주 법륜 스님(죽림정사 주지)는 이날 "나라를 빼앗겼던 당시 우리나라의 정세는 3 · 1 독립운동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다"며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게 된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용성 조사는 3 · 1운동을 통해 대한제국의 부흥이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수립을 이끌었다"며 "선열들이 독립국가를 염원하면서 일어섰던 그 뜻을 기려 통일한국을 만들 때만이 진정한 3 · 1 운동의 정신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또 화엄경의 '보살에게 있어 정토란 이미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 완성을 위해 활동하는 국토' 라는 구절을 인용해 "통일 조국 역시 이미 통일된 대한민국이 아니라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토"라고 말했다.


장수 죽림정사에서 열린 3 · 1절 기념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한편, 용성 스님은 대각교 운동을 펼친 근현대 불교의 선지식으로 종로에 대각사를 창건하는 등 도심포교운동에서 힘썼다. 특히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죽림정사와 '백용성 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 정토회 등은 올해 '용성 조사 탄신 150주년' 을 맞아 5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사의 현재적 계승을 고민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6월 5일 죽림정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대표사찰 무각사 중창불사 들어가



광주지역 대표적 도심 속 사찰인 무각사(주지 청학)가 대웅전 건립을 포함하는 중창불사에 들어갔다. 착공식에는 청현스님, 송광사 광원암 현봉 스님, 총무 중현스님을 비롯해 신도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청학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각사는 광주지역 불자들의 신행공간이자 포교의 도량이다. 불사를 광주불교의 원력을 담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무각사는 중창불사를 위해 낡은 대웅전을 헐고 약 2200m²규모의 현대식 템플스테이 수련관을 건립한다. 템플스테이관은 500명이 함께 하는 대강당과 선방, 명상실, 사경실, 다도체험실 등 최첨단시설을 갖춘 현대식 복합 건물로 신도는 물론 지역민들이 수행과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다. 또한 2층에는 전통한옥양식으로 108평 규모의 대웅전과 극락전, 관음전 등의 전각 불사를 진행한다.

무각사는 중창불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100일 기도와 정진을 시작한다. 현재 무각사에는 로터스갤러리, 전통찻집을 비롯해 불교회관 등이 입주해 있어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무각사(주지 청학) 로터스갤러리는 3월 3~20일 신진작가 공모를 개최하고, 선정된 작가에 한해 개인전을 진행한다. 참가자는 무각사 홈페이지(www.mugaksa.com)에 공모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정심원' ,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불교계 유일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에도 기여



사회복지법인 송광(이사장 도영, 송광사 회주)이 운영하는 불교계 유일의 정신질환자 요양 사회복지시설인 송광 정심원이 지난 2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송광 정심원은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재활에 앞장서고 정신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인권향상, 나눔의 사회복지를 실천하여 정신요양시설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정심원은 시설의 개방화와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실, 차량, 치료공원을 개방하고 나눔의 사회복지 실천으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100여 명에게 매년 김장철에 김장김치 나누기, 추석에 송편나누기, 설에 떡국나누기, 동지에는 팥죽 나누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기존의 받기만 했던 사회복지에서 나누고 주변을 돌보는 사회복지를 실천해 사회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용호 원장은 "마음이 아픈 정신질환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더욱 실천하라는 격려로 알고 지역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불교학당, 높은 인기 화제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 불교학당이 3월 4일 개강했다. 송광사 불교학당에는 해인사 승가대학장을 지낸 주지 법진 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 매주 화요일 유식사상, 여래장사상, 밀교사상을 강연한다.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야간반도 운영된다.

4일 첫 강의에는 교수, 교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40여명이 수강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전주에서 온 수강생 장지숙 불자는 "불교학당에 오니 함께 어울리고 스님들에게 불교교리를 배워 너무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법진 스님은 "불교를 알고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불교학당을 개설했다"며 불자로서 불교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자비심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